



그림-15 충남 농어업 관련 사업 현황도

제 2 주제

농어촌 · 농어업 국내외적 여건변화 및 전망 분석

유학열(책임연구원)

충남발전연구원

1.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

■ 정보화·지식기반 경제화

- 21세기 가치창조의 핵심수단은 정보화와 이에 기초한 지식기반의 경제화로서 **지식·정보가 경쟁력의 바탕**이 될 것임
 - 정보화는 국가사회의 틀을 변화시키는 촉매로써 정보가 사회의 중심 가치로 부상 할 것임
- 정보화의 확산으로 소비자 행태가 변화되어 **생산·유통의 대변혁**이 진행 되어 시장구조가 더욱 경쟁적으로 급변할 것임
 - 전자상거래 확산과 인터넷에 의존한 소비생활패턴은 사회 및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음

■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

-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한 세계경제 침체는 **향후 국가 간 상호의존성 증대**와 공조 노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DDA 협상 타결이 2009년 상반기 중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
- 개방화·자유화·국제화의 가속화로 국가 간 장벽이 해소되어 **세계가 하나의 시장**으로 형성될 것임
- 세계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자리매김과 마케팅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장을 외국농산물 각축장으로 내어줄 수도 있고, 세계시장을 우리 농식품의 무대로 만들 수 있음

2. 패러다임의 변화 및 농업·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

■ 패러다임의 전환

- 소비자 선택기준 : **가격(price) ⇒ 가치(value)**
 - 세계인의 소비패턴이 양에서 질로 고급화됨에 따라 구매선택기준이 가격에서 가치(품질, 안전성, 쾌적성)로 전환
 - 이에 따라 경쟁력의 중심도 가격경쟁력에서 품질경쟁력으로 이동
- 시장과 경제사회 환경 : **폐쇄(closed) ⇒ 개방(open)**
 - WTO, FTA 등으로 관세·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국경 없는 신중세적 개방사회로 전환(globalization), 소비, 무역, 자원의 세계화
- 생산요소 중요성 : **토지(land) ⇒ 사람과 기술(human+tech)**
 - 농업생산 중심국이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

■ 소비자의 선호 변화 및 식품안전성 강조

- **그린(green), 웰빙(well-being)** 등 새로운 소비자 선호 부각
 - 급격한 도시화,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농업·농촌 부문이 침체되어 왔으나, 최근 反공업화, 脫도시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확산
 - 전국 일일생활권의 구축으로 대안적 농어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가할 것임
-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각성에 따라 **식품의 안전성**을 생산, 유통,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체계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
 -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위해요소중점관리(HACCP)제도를 채택하고 회원국에 시행을 권고하고 있음
 - 또한 최근 광우병, 식품멜라민 파동 등에 의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폭

■ 농업·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

- 농업·농어촌이 갖고 있는 **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**
 - 농업·농촌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, 국토·자연환경보전기능, 식량생산기능, 휴양제공기능, 전통문화보전기능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대감 고조
 - 농촌관광, 1사1촌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와 농어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밀접하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할 수 있는 도·농간의 相生 시스템 구축 필요
- 농정의 이념이 생산중심에서 농산물의 품질, 농업의 다원적 기능, 환경적 역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
 - EU : 농정의 목표를 국제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전원경관의 유지, 농업·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등 농업·환경·지역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임
 - 일본 : 농업관점에서 나아가 국민적 관점에서 식료·농업·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
3. 농업의 녹색성장 중요성 증대

■ 지구온난화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요성 증대

- 지구온난화로 자원 및 환경적 위기에 직면하고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 하에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 투입하는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, 녹색기술을 통한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옴
- 농업부문은 기본적으로 녹색성장과 가장 근접한 부문으로서 **재배기술과 농법의 전환, 환경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정 추진**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여

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

-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지역의 농산특산물 재배지역의 북상과 병충해 확산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충청권 맞춤형 정책 필요
- 지구온난화로 인한 작목별 재배 적지의 변화

4. 10년 후 농업·농촌의 새로운 모습

■ 10년 후의 농촌사회

- 다양한 글로벌 환경의 영향을 받음
 - 국제결혼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전통적·확일적 특성에서 다문화 수용지역으로 변화
- 농촌지역에 많은 돌봄 인력(농촌도우미, 농촌자원봉사자)이 증가하고 기업체들의 농촌 이전이 증가
 - 쾌적한 농촌지역에 주거지별 재택근무 실현
- 컨소시엄 형태의 농업활동 증가
 - 소규모 레저관광 농업 또는 대규모 대체유기농 간의 컨소시엄 요구
- 농산물 신자유 경쟁 시장
 - 혁신적인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이 중개인과 중간유통 체제를 소멸시켜 버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맞춤형 생산체제 촉진
 - 이를 위한 새로운 유통체제 개발이 필요함. 예를 들면 광역적인 직거래 네트워크 운영센터, 직거래 유통도우미 관리 네트워크, 각종 인증 농산물 총괄 관리 센터가 필요함

■ 10년 후 국내 농업구조

-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체 출현
 -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후계세대의 단절로 인해 새로운 농업경영체 출현 불가피
 - 현재의 농지 유통화 현상은 노령농업인의 은퇴 가속
- 지속적 유희농지 증가
 - 유희농지를 비농업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- 환경보전형 농업 추구
 -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국토환경 보전차원에서의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의 개발·보급 필요

제 3 주제

충남 농어업 ·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기본 구상

김정연(선임연구위원)

충남발전연구원